

막장 드라마 만연에 대한 우려

시청률의 정량적 수치 못지않게 프로그램의 정성적 시청경험도 중요

김봉현 |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bkim3@dongguk.edu



높아지고 있는 막장의 트렌드화에 대한 우려

소위 '막장' 트렌드가 최근 방송계의 새로운 드라마 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 방송시간의 시청률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프로그램에서 '막장적' 요소는 마치 '홍행의 법칙'이 된 듯하다. 이 같은 추세와 함께 복잡하게 꼬여있는 인물관계의 묘사, 현실상으로는 말이 될 수 없는 상황설정, 또는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장면을 이용해 즐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막장 드라마'에 대한 논란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방송사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막장의 강도는 점점 세어지는데다, 주로 밤 10시 이후에 단골 메뉴였던 '막장코드' 식 드라마가 어느덧 어른과 아이는 물론 온가족이 함께 보는 가족시간대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콘텐츠에 대한 제재건수도 전년대비 33%가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제재건수의 증가는 이른바 '막말' 방송과 저품격 드라마에서 기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역시 '섹스', 'nud', '폭력', '지속한 언어'가 일반 드라마나 리얼리티 TV프로그램 등에 주요 단골메뉴로 빈번히 오르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나 시청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저속하거나 적절치 못한 표현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조항 제1조에 의해 가급적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특정시간대의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TV 방송에서 어린이가 시청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저속하거나 적절치 못한 표현이나 장면을 방영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는 TV나 라디오 방송에서 어린이 시청가능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동시대 사람들의 표준에 어긋나는 소위 '막장'적 요소의 지속적인 표현이나 장면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